

“정시 합격자 ‘이중등록’ 주의하자”

환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 등록 땀 입학 취소 될수도
추가모집 마지막날 불가피한 일시적 이중등록은 문제 안 돼

대학입시 정시모집 최종합격자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이후 추가모집과 등록이 이뤄지는데, 이때 ‘이중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총원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자칫 ‘이중등록’으로 간주돼 2개 대학 모두 입학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서이다. 다만, 추가모집 마지막날까지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중등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입

학은 취소되지 않아 걱정을 덜어도 된다. 13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총원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월 8일부터 총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총원이 이어진다. 이때 총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이에 불안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총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특히 총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은 당일 오후 9시까지만 총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이뤄진다. 대학에 따라 등록도 급하게 요청하기도 하면서 이중 등록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처럼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총원에서 이중등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이중등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낸다. 간혹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

록취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등록 취소를 할 땐 단순히 의사 전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총원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루게 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대, 세계시민성 함양 글로벌 교육기행 비교과활동 우수학생 70명, 싱가포르서 국제 마인드 함양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비교과활동 우수 학생 70명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중인 ‘2020 세계시민성 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 교육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글로벌 전문지식과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다. <사진> 창의융합대학(학장 송창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4-8명으로 팀을 꾸려 스스로 탐구주제와 일정을 정하

고 실행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싱가포르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난양공과대학 시설 투어, 싱가포르 경제 성장과정 알기, 싱가포르 역사문화알기, 다문화체험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 해외 승무원 체험 교육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최근 브루나이항공 로열브루나이항공(Royal Brunei Airlines)에서 승무원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펼쳐진 이번 교육은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1명과 교수 1명 등 22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항공안전수업을 비롯해 영어면접, 강의 등의 승무원 필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광주대 제공>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체육대학 ‘두런두런 스포츠체험 교실’ 성료

조선대 체육대학 운동부 선수들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참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13일 조선대(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조선대 LINC+ 사업단(단장 김춘성)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 RCC 및 UIC고도화연구사업’의 ‘두런두런(Do Run Do Run) 스포츠체험 교실’을 통해 진행됐다. ‘두런두런(Do Run Do Run) 스포츠체험 교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는 청

소년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생활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체육대학 이계형 학장과 안용덕 체육학과장을 비롯하여 김현우, 김민철, 홍완기, 전현수 교수와 한영일(축구), 박성필(배구), 김오균(핸드볼), 강양현(농구)감독 등이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학생 운동선수들과 함께 스포츠클럽 학생들에게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종목의 기초 기술과 경기 기술에 대한 지도활동을 진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겨울방학 SW 교육 역량 강화

교원 650명 직무연수 전남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 1월 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외 4개 기관에서 지역 내 유·초·중·고교 교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동계 교원 교육정보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통한 상상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및 협력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2015개정 교육과정과 컴퓨팅사고력, 알고리즘과 놀이중심 활동, 교육용 프로그래밍언어의 이해와 체험, 드론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실습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정보화교육 과정과 교실에서 바로 통하는 예술 과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심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초등학생 겨울방학특강·겨울독서교실 운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겨울방학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특강’과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12개 강좌로 개설된 ‘겨울방학특강’은 이날부터 23일까지 8일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강좌는 ‘8일간의 한국사 산책’, ‘도자기 빛는 도서관’, ‘어린이 방송댄스’ 등이다. ‘겨울독서교실’은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내가 사는 지구 여행’을 주제

로 ‘도서관 이용법’, ‘내가 살아가는 지구 속 탐험하기’,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리포터 인터뷰하기’, ‘아메리카 대륙 브레인 스토밍’, ‘회전목마 토론’, ‘여행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구성됐다. 상시 운영하는 유아 대상 강좌로는 ‘도담도담 책 놀이터’, ‘좋은 책 읽어주기’, ‘들어 불래 우리고정’ 등이 있다.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방학을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신대 방사선학과, 방사선사 국가시험 2년 연속 100% 합격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학과장 한재복)는 ‘제47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4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며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46회 방사선사 국사에서는 30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한 바 있다. 제47회, 46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77.1%, 79.7%에 불과했다.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앞선 제45회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제44회 국가시험에서 만 69세의 최고령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명문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신대는 4학년 재학생들이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국가시험 전용공부방을 지원하고 첨단 실습 장비를 구축,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 여름방학 동안 국가시험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4학년 1년 동안 20번 가량의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실전 감각을 높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